

문헌정보학의 현상(現狀)과 발전방향 *

The Status quo and Perspectives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이 은 철(Eun-Chul Lee)**

목 차

- | | |
|----------------------|---------------------------|
| 1. 서론 | 4. 1 토착성의 결여 |
| 2. 문헌정보학의 발전단계 | 4. 2 전문용어의 혼란 |
| 2. 1 서양 문헌정보학의 流派 | 4. 3 이론적 토대의 결여 |
| 2. 2 교육사적 발전단계 | 4. 4 문헌정보학 이론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 |
| 2. 3 한국 문헌정보학의 성장 단계 | 5. 문헌정보학의 발전방향 |
| 3.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접근양상 | 5. 1 지역별 협력과 계획의 수립 |
| 3. 1 기능주의적 접근 | 5. 2 전공영역 및 교과과정의 조정 |
| 3. 2 환원주의적 접근 | 5. 3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 3. 3 형이상학적 접근 | 6. 결론 |
| 4. 문헌정보학의 現狀 | |

초 록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무엇이 요구되는가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에 적합한 문헌정보학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정보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 어떠한 발전 단계를 거쳐왔는가를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문헌정보학의 발전단계를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양상들 -기능주의적 접근, 환원주의적 접근 및 형이상학적 접근 등- 을 검토해 보았다. 셋째, 문헌정보학이 지니고 있는 現狀들을 점검하였다. 제시된 문헌정보학의 현상으로는 토착성의 결여, 전문용어의 혼란, 이론적 토대의 결여 및 문헌정보학 이론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문헌정보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 특히 문헌정보학 교육프로그램 포함되어야 할 영역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rimary objectives of this paper has been to survey the present status quo and problems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to pursuit the perspectiv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r these, this paper has discussed (1)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er's approach methods to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ory, (3) the present status quo and problems that are confronting in the area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4) the perspectives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especially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programs.

*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의 1997년도 성균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접수일자 1998년 11월 10일

1. 서론

우리 나라에서의 문헌정보학은 근대적 의미의 문헌정보학이 도입된 1950년대 말 이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 동안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활발한 연구와 노력이 거듭되어 문헌정보학의 각 영역에서 두드러진 성장이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문헌정보학의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학문의 현상과 전망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미진한 단계에 머물고 있어 체계적인 지식의 축적이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발전은 물론 학문의 발전에 있어서 세계 각 국가간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도리어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러한 상황은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선진 국가들의 이데올로기와 기술에의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학문의 독립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문헌정보학도 개발도상국가들 고유의 지역적인 상황, 요구 및 능력 등이 거의 고려되지 않은 채 선진 외국의 문헌정보학에서 차용해 온 일반적인 방법론과 기술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은 학문의 정체성, 독립성 및 고유성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아직까지도 제3세계의 그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선진국의 이론을 도입하여 충분한 검증도 거치지 않고 적용시키려는 학문적 예속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문헌정보학의 새로운 위상정립을 위

한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는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의 전반적인 학문적 성격과 그 연구영역은 물론 이론 개발을 위한 연구방법론, 학문의 특정분야 편중 현상 등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문헌정보학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정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40여년의 학문적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한국의 문헌정보학이 학문적으로 독자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정보화 사회에서의 확고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제 문헌정보학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무엇이 요구되는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여 각 국가 고유의 현실에 적합한 문헌정보학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이에 본고는 문헌정보학이 외국의 이론과 방법론을 보편적 원리로 채용하는 오류를 더 이상 범할 것이 아니라 문헌정보학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 사회의 맥락에서 문헌정보학의 현실을 다루는 자세를 가다듬고, 현실에 적합한 문헌정보학 교육프로그램을 모색해 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문헌정보학 발전 단계를 확인하고 둘째, 문헌정보학 이론에 대한 접근양상을 살펴보고 셋째, 문헌정보학의 현상을 점검해 보며, 넷째, 문헌정보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문헌정보학의 발전 단계

문헌정보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 어떠한 발전 단계를 거쳐왔는가를 규명하는 일은,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문헌정보학의 발전단계를 조사, 제시하였다.

2.1 서양 문헌정보학의 流派

곽국경, 맹광균, 서인지 등은 서양 문헌정보학의 기원과 발전 및 6대 유파를 기술하고, 각 유파의 발전과정, 특징 및 주요 대표인물의 학설을 정리, 발표하였다(霍國慶, 孟廣均, 徐引麓 1998-a, 3-9; 霍國慶, 孟廣均, 徐引麓 1998-b, 1-5). 이들이 제시한 문헌정보학의 6대 유파를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술학파

- 도서관을 하나의 독립적 실체로 간주하고,
- 문헌정보학의 연구대상을 구체적인 도서관의 기술, 운영방법 및 봉사내용 등으로 삼고 있음.
- 주요 대표학자: M. W. Schrettinger, E. A. Ebert, C. Molbech, Melvil Dewey 등

나. 관리학파

- 19세기에 출현한 주요 유파로서, 현재에도 미국과 영국의 문헌정보학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도서관 서비스를 도서관 관리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도서관 관리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음.
- 주요 대표학자: A. Panizzi, Edward Edwards, K. C. Harrison, R. Beenham, Colin Harrison 등

다. 사회학학파

- 새로운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형성된 유파로서 초기에는 Chicago 학파로 불리어지기도 함.
- 사회학적 연구방법을 도입하고, 도서관을 사회속의 도서관으로서의 변화과정에 초점을 두어 고찰하며, 연구대상으로 사회의 기억 또는 사회정신의 전달과정에 초점이 맞추어 있음.
- 주요 대표학자: L. R. Wilson, D. Waples, Pierce Butler, C. B. Joeckel, R. A. Beals, J. H. Shera, P. Karstedt 등

라. 교류학파

- 정보학의 분리, 발전에 따른 도서관학의 반작용으로 형성된 유파
- 정보학적 이론과 방법을 조화시켜 정보분석 및 이용연구를 중요시하며, 사회지식의 교류현상, 정보의 교류현상 및 과학분야의 교류현상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음.
- 주요 대표학자: J. M. Orr, P. Ingwersen, P. Vakkari, G. Wersig 등

마. 신기술학파

- 컴퓨터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정보기술을 도서관영역이 응용함으로써 비롯된 유파

-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 발전시키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전제로 한 도서관의 미래 발전방향을 예측하는 것을 중시하여 미래학파로 불리워지기도 함.
- 주요 대표학자: J. C. R. Licklider, F. W. Lancaster, James Thompson, Walt Crawford, Michael Gorman, K. E. Dowlin 등

바. 정보관리학과

- 정보자원관리의 이론과 실재를 도입하여 문헌정보학의 발전을 촉진시키려는 유파로 정보자원관리학과로 칭하기도 함.
- 정보자원의 수집, 관리를 중요시 하며, 수집, 관리의 핵심작용과 일반 정보관리 이론을 탐색하는 것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음.
- 주요 대표학자: W. J. Martin, Blaise Cronin, E. Davenport, Karl A. Stroetmann 등

2. 2 교육사적 발전단계

남태우, 정준민은 문헌정보학의 발전단계를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학설을 중심으로 교육사적인 측면에서 구분, 제시하였다(남태우, 정준민 1995, 195-202). 이들이 제시한 문헌정보학의 교육사적 발전단계를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선구적 시대(1876년 이전의 시대)

- 도서관학 및 도서관이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이전의 시기

나. 개척기 시대(1876-1919년대)

- 1876년: 미국도서관협회 창설, Library Journal 창간, 미 연방교육국의 공공도서관 특별보고서 발표, DDC 창안
- 1887년: 컬럼비아대학 도서관학교 개설 및 독일 괴팅겐대학 도서관학 강좌 개설
- 1915년: 미국도서관학교협의회 (Association of American Library Schools)결성
- 1919년: 영국 런던대학 도서관학교 개설

다. 전문직 논쟁시기(1919-1924년대)

- 1923년: 카네기 재단의 윌리엄슨 보고서(The Williamson Report: Training for Library Service) 발표

라. 교육의 확립시기(1924-1936년대)

- 1924년: ALA산하 도서관학 교육위원회 (Board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설립
- 1926년: 시카고대학 도서관학교 박사과정 개설

마. 창조적 재사고 시기(1936-1951년대)

- 1940년대: 문헌정보학분야의 새로운 연구영역 대두

바. 조심스런 재조정 시기(1951-1960년대)

- 학부수준의 교육에서 대학원 수준의 교육으로 발전적 변화
- 대학교수의 질적수준 제고(박사학위수준의 요구)
- 박사학위과정 개설 대학의 급증
-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기반 조성시기

사. 도약적 확장시기(1960-1970년대)

- 1960년: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창간
- 1965년: 미 고등교육법의 제정과 함께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기반의 확충
- 도서관학교에 정보학 관련 교과목의 등장
- 미국 정보학회의 창립

아. 변화국면의 시기 I(1970-1979년대)

- 1978년: 코난트 보고서(The Conant Report: A Study of the Education of Librarians) 발행
- 문헌정보학 분야의 교과서 출판활동의 활발

자. 변화국면의 시기 II(1980-현재)

- 문헌정보학 영역에 컴퓨터 관련 영역의 본격적 이입
- 우수한 전통적인 도서관학교의 폐교 현상 발생
- 문헌정보학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에 대한 강력한 요구 등장

2. 3 한국 문헌정보학의 성장 단계

이수상은 한국 문헌정보학이 처해 있는 현상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 문헌정보학의 성립배경, 성장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이수상 1998, 95-131/207-208).

가. 제1단계(1950년대 후반 - 1960년대): 학문적 체계 설정의 단계

- 도서관학의 학문적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됨
- 도서관학이 기술 또는 기술학의 차원을 뛰어넘어 사회과학으로 정의됨
- 도서관학의 명칭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제기
- 도서관학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 제시

나. 제2단계(1970 -1980년대): 정보학의 도입 및 새로운 학명의 모색 단계

- 정보학 도입의 필요성 제기
- 정보학의 도입에 따른 도서관학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 제기
- 정보학의 도입에 따른 교과과정 편성에 대한 논의 제기
- 학명 변경에 대한 지속적 논의의 결과 문헌정보학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학계의 의견이 조정되고 각 대학이 수용함.

다. 제3단계(1990년대 이후): 한국적 문헌정보학의 모색 단계

-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도서관 현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도서관 봉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한국적 문헌정보학의 모색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됨.

3.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접근 양상

문헌정보학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는 모든 학문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이, 문헌정보학계에서도 끊임없

이 질문되어 왔다.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 규명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1970년 아우구스부르크에서 개최된 제60회 독일도서관대회(Deutsche Bibliothekartag)에서 “문헌정보학은 학문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가?”의 주제 강연이 발표되었다. 이 주제 강연에 대한 토론을 통해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이 다음과 같이 규명되었다(Kreig and Grunwald 1970, 175-180).

- 가. 문헌정보학은 엄밀한 의미로 학문으로서 성립할 수 있다. 그것은 학제적인, 혹은 융합적인 학문이고, 단순한 복합체가 아니다.
- 나. 문헌정보학은 도서관 관리의 기초가 되는 도서관을 위한 경영학을 연구하는 것이다.
- 다. 도서관은 특수한 정보시스템의 하나이며, 정보 시스템망의 센터로 볼 수 있으며, 그 활동에는 정보과학이 깊이 관련되어 있어 문헌정보학을 특수응용정보과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라. 도서관과 사회의 관계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학적인 연구가 중요하게 되고, 그것은 도서관 운영에서의 의사결정에 기여한다 라는 실제적 의미가 인정된다.
- 마. 도서 및 도서관사의 연구는 문헌정보학의 중심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도서 및 도서관사에 대한 사회사적 연구가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게 될 것이다.

셰라(Jesse H. Shera)는 도서관은 사회적 도구로서 도서관이 설립되어 있는 사회로 부

터 그 모습과 목적을 취하여야 하며, 또한 도서관은 사회의 요구에 대해 봉사하고 있는 사회적 기관이고 사회의 일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헌정보학의 목적은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 또는 역할의 관점에서 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Shera 1973). 또한 세이보(J. Sabor)는 문헌정보학은 그 이론적 원리의 근거로서 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에 의해 도서관이 각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Sabor 1966, 109).

상기한 바와 같이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토대를 모색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는 과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문헌정보학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속성에 대해 학자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또는 접근하는 학자들의 배경지식에 따라 그것을 규명하려는 관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접근법이 사용되어 왔다. 이에 본 장에서는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토대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중 대표적인 것을 정리하려고 한다.

3. 1 기능주의적 접근

문헌정보학자들은 “사서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은 무엇을 의미하며; 사서의 고유한 책임은 무엇이며; 사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어떤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Shera 1972, 197)을 통해 문헌정보학의 이론에 대해 기능적 접근법을 빈번하게 사용

하여 왔다. 문헌정보학 문헌에 나타나 있는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도서관 운영의 원리 - 문자기록이나 일반적인 문헌을 수집하고 조직하여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함 - 로 일반화 되어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도서관과 사서의 기본적 기능이 무엇인가를 결정함으로써 사서직의 정체성과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을 규명하려는 기능주의적 접근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란카스타(W. Lancaster)는 그의 저서인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Library Services*에서 “모든 도서관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실제적이든 잠재적이든 특정 이용계층의 관심대상이 되는 서지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한 자료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직하고 제시하여; 그것들을 이용자에게 유용하도록 하는 것”이며(Lancaster 1977, 2), 도서관은 모든 서지정보원과 ... 특정 이용계층 사이의 공유영역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 도서관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서지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Lancaster 1977, 5). 이와같이 그는 도서관운영의 기본적 원리와 기능을 도서관의 목적 또는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토대로 설정하려고 하였다.

기능주의적 접근법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의 여부를 판별할 규범인 수단을 강조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결론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기술적 과정, 경영절차 및 경영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무적인 절차상의 이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3. 2 환원주의적 접근

이론적인 문제에 접근할 때 자주 사용되는 또 다른 방법은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레비탄(K. B. Levitan)은 이러한 접근법은 규명하여야 할 대상을 몇 개로 분리하여, 분리된 각 부분들을 차례로 검토하기 때문에 환원주의자의 사고방식과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Levitan 1982, 244). 이러한 접근방법이 문헌정보학 저술가나 이론가에 의해 도입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문헌정보학에 대한 여러가지 가능한 방향이 제시되고, 그것에 따라 문헌정보학의 속성과 중요한 관점들이 밝혀져 왔다.

크라이스트(J. M. Christ)는 그의 저서인 *Toward a Philosophy of Educational Librarianship*에서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과거의 사고방식을 폭넓게 밝혀내기 위한 시도에서 상기의 “도서관의 본질이 무엇인가”의 질문을 자주 이용하였다(Christ 1972). 이러한 사고형식은 가장 제한적인 시각 - 도서관을 추상적 구조라기 보다는 물리적인 구조로 간주하는 것 - 에서부터 대단히 막연하고 일반적인 시각 - 문헌정보학을 문화와 사상의 자유 원리가 구체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 에 까지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범주에는 문헌정보학을 교육, 학문, 연구, 독서, 통신 및 심지어는 정신요법과 동일시 하는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이 역동적이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견해와 도서관은 정적이며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양립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크라이스트의 견해는 일정 수준의 전문직적인 합의를 도출하려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법의 보급과 순환은 상당히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의 일부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사려깊음에도 불구하고 “문헌정보학의 이론”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의 구조에 쉽게 통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개 특정 문제를 다루는 대단히 주관적인 개념화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Horowitz 1988, 44-45).

3. 3 형이상학적 접근

사회과학 철학자인 카플란(A. Kaplan)은 문헌정보학의 지적기반은 논리학, 언어학 및 수학 등과 같은 메타학문(metasciences)이어야 하며, 메타학문은 객관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이나 자연으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언어 또는 인간의 정보처리과정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 같은 메타학문은 순수이성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체와 내용보다는 구조, 체제 및 외형의 문제와 주로 관련되어 있다(Kaplan 1964, 14).

카플란의 접근방식은 문헌정보학을 인문학의 범주에 두고 있으며, 문헌정보학과 철학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양자가 지식과 문화의 총체를 그들의 적합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문헌정보학의 인문학적 근거를 강조한 나머지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더구나 메타학문으로서 문헌정보학이 주로 지적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기술을 통한 의미의 부여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Kaplan 1964, 16).

쉐라(Shera 1972)는 문헌정보학의 요소는 인간과 저작물 간의 관계, 지식의 연구 과정 또는 지식의 조정, 결합 및 작용과정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욱이 문헌정보학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사회인식론과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사회인식론을 사회가 전체로서 그 총체적 환경에 대해 지각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제반 여건이 사회의 지식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지식사회학에 대한 일종의 반대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이테키(J. Z. Nitecki)는 문헌정보학에 대한 흥미롭고, 유용한 개념 정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문헌정보학의 핵심을 3차원 즉, 절차적 차원, 개념적 차원, 그리고 상황적 차원으로 보고 있다(Nitecki 1964). 이들 각 차원들은 도서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개념과 상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절차적 차원은 도서관을 조직화된 지식 매개물의 집합체로 인식하고, 도서관 임무의 관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서, 경험적이고 수동적이며, 도서관의 운영 측면에서 나타나는 개념이다. 둘째, 개념적 차원은 지식 매개물의 상징적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도서관을 지식의 배부처로 규정하고 있어서 교육적이며 관념적인 개념으로 나타나

고 있다. 셋째, 상황적 차원으로 이는 지식 매개물의 주관적 내용은 특수한 상황하에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사서들은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에서 어느 한 쪽도 억제하지 않고 상호 중재하려고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라이트(H. C. Wright)는 문헌정보학이 실존대상으로서 또는 사회적 현상으로서 과학적으로 연구될 수 있지만, 문헌정보학의 속성은 인간의 속성을 포함하는 대규모 연구의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서도 연구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문헌정보학과 철학은 각각 고유하고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양자는 최종의 형태가 유사하며, 메타학문적 성격과 동등한 우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Wright 1977, 10-11).

4. 문헌정보학의 현상

4. 1 토착성의 결여

선진국들의 역사발전과 문화발전의 양상은 개발도상국가들의 역사 및 문화 발전과는 차이가 있어왔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발전과 도서관 발전의 문제에 있어서도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간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도서관은 사회의 요구에 대해 봉사하고 있는 사회적 기관이고 사회의 일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헌정보학의 지적 기반은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 또는 역할의 관점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국가의 문

헌정보학은 그 국가와 사회의 도서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의 문헌정보학은 선진국의 문헌정보학이 직면해 왔던 이론적 토대의 구축, 교육프로그램의 정비 및 전문화를 위한 노력으로 특징 지워지는 유사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으며, 아마도 40-50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오늘날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수행해 온 것과 유사한 연구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대부분 개발도상국들로 구성되어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공식적인 문헌정보학 교육이 1930년대에 시작되어,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1950년대의 미국 문헌정보학 교육의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적인 요구와 능력의 대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선진 외국의 문헌정보학에서 차용해 온 이론과 기술들을 수용해 왔다(Horowitz 1988, 3).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측면에서 주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1970년에 이춘희 교수는 “문헌정보학에서도 우리의 것을 찾고 우리의 실정에 알맞는 ... 과거의 모방과 모색의 시대에서 일보 전진된 한국 문헌정보학의 연구개발”(이춘희 1970, 154-155)이 절실함을 토로한 바 있다. 그러나 4반세기가 지난 1993년에도 “너무 오랫동안 남들의 지식을 수입하는 데만 급급해 온 잘못된 관습을 청산하고, 이 나라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과제들을 해결하

는 이론을 스스로 창조하면서 ... 이제 학문의 의존에서 자립으로, 수입에서 생산으로 바꿀 때가 된 것이다”(최성진 1993, 82)라고 한국 문헌정보학이 지니고 있는 토착성의 문제가 또 다시 지적된 바 있다. 이는 우리의 문헌정보학이 과거는 물론 현재도 우리의 사회에 고유한 이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좋은 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의 문헌정보학자들은 문헌정보학에 대한 고유한 이론적 토대와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줄 통합원리를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4. 2 전문용어의 혼란

도서관이 사회기관으로서 이 시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분명히 불확실하고 불충분하였으며, 자기 영역을 평가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Harris 1976). 또한 도서관 사서의 전문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은,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면과 실제적인 면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수세기 동안 사서직을 유지시켜 온 문헌정보학의 지식체계와 활동의 기본 구조가 오늘날의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실에 대응하기에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는, 도서관의 현장, 이념 및 기술적 구조에 대한 지적 전망이 일치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도서관 현장 및 문헌정보학 영역의 전문용어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럽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문(Eric Moon)은 문헌정보학을 평가하면서 “학문의 성숙도는 그 학문에서 사용하는 표준용어의 수준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문헌정보학이 1964년의 시점에서 비록 연대기적인 측면에서는 중년기에 해당되지만, 각 용어에 대한 정의의 측면에서 볼 때 문헌정보학은 아직도 語義 발달의 유아기에 있다”(Moon 1964, 2750)고 하였다. 일례로 문헌정보학을 지칭하고 있는 여러가지 용어(예; librarianship, library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ocumentation, information science, 기타)가 여전히 혼란스러우며,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2명의 저자가 동일한 사실에 대해 저술하고 있는지가 전혀 분명하지 않음으로 문헌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우며, 특히 선행 연구문헌들을 탐색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보아, 이러한 진술은 오늘날 까지도 사실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여러 저자들이, 문헌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한 개념상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좀더 강력하고 솔직한 표현으로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토대가 결여되어 있음을 빈번하게 지적하여 왔다. 단톤(J. P. Danton)은 문헌정보학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에 대한 철학을 완전하고도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철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용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Danton 1934).

4. 3 이론적 토대의 결여

인쇄된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면에서 도서관은 수세기 동안 안정된 기관으로 존속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도서관은 이전의 전체 도서관 역사에서 직면해 왔던 것보다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유일하게 불변하고 있는 것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통신 및 이동의 증가로 인해 사회는 더욱 복잡하고 다원화 되었으며, 그 결과 사회의 각 기관들은 증가하고 변화하고 있는 고객의 새롭고 확대된 서비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미래의 추세와 방향을 예견할 수 있는 통찰력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효율적인 사회기관은, 그들의 목적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치고, 기존의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검증하고 재규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회기관이 이러한 과정을 게을리할 때, 사회는 그들의 요구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사회는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사회기관을 출현시키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대표적인 사회기관인 도서관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기관인 도서관을 발전시키고 변화시켜나가는데 필요한 이론과 실재를 정립해 나가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문헌정보학의 방향설정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이 변화하는

시대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의 신조를 점검하고 그것의 기능, 존재 이유, 목표 및 목적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하여야 한다는 견해(Mukherjee 1966, 25)에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토대에 관한 논의는 윌리엄슨 보고서(Williamson Report)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Williamson 1923), 그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문헌정보학분야의 대다수 연구자들이 한 두 번 이상은 여기에 관여해 왔으며, 특히 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문헌정보학 관련 문헌의 전반에 걸쳐 분산, 수록되어 완벽한 조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토대에 대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 철학자인 오르테가(J. Ortega y Gasset)는 문헌정보학은 이제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문헌정보학은 매 순간마다 여러 가지 가능한 활동들 중에서 가장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한가지를 추구하여야만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그는 그러한 선택의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자신의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중대한 기회를 무산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토대를 확고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Ortega 1961, 62).

지금까지 문헌정보학의 철학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온 사실이며, 왜 철학이 필요하며, 철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문헌정보학자들 사이에

일치된 견해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문헌정보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실용주의와 근시안적인 견해에 대해 비판해 왔으며, 그외에도 문헌정보학자들이 형이상학적인 이론에 대해 지지와 비판의 양면적인 태도를 견지해 온 것이 문헌정보학 철학의 정립을 방해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버틀러(P. Butler)는 이론적인 사고활동에 대한 문헌정보학자들의 욕구와 경향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고 신랄하다. 그는 문헌정보학자들이 전문직의 이론적인 면보다는 기술적 과정에 대한 합리화를 보편화하기 위한 시도를 중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Butler 1933). 그로부터 30여년 후에 쉐라도 문헌정보학자들이 대체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전문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다는 점에 동의하였다(Shera 1965). 동시에 사서들도 주로 전문직으로 인식되곤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무리하게 활동해 왔으며, 그들이 맡은 역할에 대한 분명한 전문직적인 철학이 결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적 인식과 편견에 너무 쉽게 상처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Harris 1976).

4. 4 문헌정보학의 이론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

문헌정보학자들이 학문의 이론적 토대를 추구함에 있어서 하나의 통일된 개념, 즉 도서관은 인간경험의 기록들을 수집, 보존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개념이 그 기초를 형

성하고 있다. 그러나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은 각각 상이한 관점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관점들은 대체로 다음의 2가지 양상을 취하고 있다.

첫째는 도서관의 사명에 대한 기능 위주의 인식에서부터 일반적 도서의 수집, 조직 및 이용이라는 하나의 운영원리가 전개되고 보편화 되었으며, 이 원리로부터 일반적인 지식의 핵심과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여 왔다.

둘째는 도서관을 인간의 기억능력을 확장 시킴으로서 자신의 자연적인 의사소통체계를 반영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해 낸 의사소통체계로 인식하고 있다. 즉 인간의 의사소통을 도서관의 존재 이유로 생각하며, 지식과 정보를 도서관의 주요 관심사로 인식하면서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토대를 모색하려는 양상이다.

상기와 같은 양상은, 전문직에 대한 수준과 관점에 대한 견해에서도 다양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직 사서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과 형이상학적 접근, 직업훈련에 대한 우선과 이론에 기초한 교육의 강조, 그리고 정보관리에 대한 책임수행과 교육적 기능의 강조 등과 같은 양자적인 측면이, 모두 문헌정보학의 이론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보여진다.

문헌정보학 이론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도서관의 사회적인 기능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반영하는 두 개의 사조가 전개되어 왔다. 첫 번째 경향은 1차적으로

도서관을 사회의 한 기관으로서 보며, 문헌정보학을 사회과학의 하나로서 간주하는 것이며, 두 번째의 경향은 도서관을 기본적으로 개인적 발전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며, 문헌정보학을 본질적으로 인문과학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첫 번째 관점은 문명의 모든 요소를 보존하는 것을 포함하는 도서관의 전통적인 기록 보존 기능을 확대시킨 것으로, 도서관은 총체적인 사회적 기억장치이며, 사서는 사회의 문화적 기록물에 대한 사회의 수호자(Butler, 1933, xii)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사회의 발전을 추구해야만 하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 문자 기록들의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헌정보학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사고의 결과 중 하나로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문헌정보학의 현상들과 여러 문제들을 보려는 경향과 그것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사회과학적 방법-즉, 현장조사, 질문지법, 계량화 및 통계적 분석과 같은 익숙한 방법-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의 인문학적 관점은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을 개인의 자아 성취를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브로드필드(A. Broadfield)는 개인은 가장 궁극적인 인간의 목적이며,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개인의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이며, 사상의 자유를 향유하는 것이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이며, 도서관은 사상의 자유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 중 하나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Broadfield 1949, 35).

이러한 인문과학적 관점은, 모범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도서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견해에는 명백히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경우,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를 초월하는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인간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관점은 본질적으로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도서관의 주요 임무가 “사고하는 인간 공동체의 건설을 도와 주는 것이며, 개별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견지하도록 도와주는 것”(Broadfield 1949, 15)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교육분야에서의 최근 발전이 이러한 입장들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개인에 대한 봉사를 강조하고 있는 인문주의적 관점은 개별학습 및 자발학습 이론의 개발과, 평생교육에 대한 최근의 경향에 의해 더욱 강조되어 왔다. 반면에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의사소통의 체제 내에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사서들은 컴퓨터의 출현과 정보처리에 대한 컴퓨터의 역동적인 가능성들에 의해 크게 고무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마르코(G. A. Marco)에 따르면,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토대에 대한 인식의 다양화는, 도서관의 목적에 대한 아주 다양한 해답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우리들이 도서관의 목적에 대해 심사숙고하게 됨에 따라 인문학적 또는 사회과학적인 측면이 모두 가능한 해답이므로 결국 우리들은 두 측면 중 하나를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Marco 1966, 195).

5. 문헌정보학의 발전방향

5. 1 지역별 협력과 계획의 필연성

개발 도상 국가에서의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 교육은, 세계적인 통일성과 지속성을 위해 국제적인 원칙과 흐름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며 한편으로 지역적으로는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수준의 과제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긴장 상태에 대해 두 계층의 사람들 -이미 21세기의 정보사회에 살고 있는 선진 공업국가들의 문헌정보학자들과 주로 개발도상 국가의 문헌정보학자들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만약 전자가 후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문헌정보학 분야의 여러 활동들은 무익하게 되거나 사태를 도리어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여러 선진국들과 국제 기구들은 개발도상국들의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의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개발도상국들의 고유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선진국들의 논리를 강요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아, 개발도상국들의 선진국 예속상태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는 비판적 견해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활동이 범세계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경향은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세계가 더욱 가까워짐으로 생겨난 자연적인 현상이다. 동일한 지역적 및 정치적 영역 내에서 세계인들이 서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종족과 문화에 대해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고, 따라서 국제적인 협력과 계획은 생존의 필수적인 문제가 되었다. 출판물의 놀랄 만한 성장률과 새로운 봉사에 대한 요구의 증가에 직면하면서, 금세기의 사서들은 “국가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만하고, 또한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가능한 통합된 도서관 시스템이 없이는 일정 수준의 봉사를 제공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Havard-Williams 1976, 138)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지역별 계획수립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과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가 적절히 정립될 수 있도록 목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역할 인식이 필요하며, 또한 대안에 대한 분석, 수행 과정의 선택 및 적절한 도착화 방법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5. 2 전공영역 및 교과과정의 조정

사서직은 책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측면에서 수세기 동안 대단히 안정된 직업으로 존속하여 왔으나, 20세기에 접어들어 유래 없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식의 폭발 현상과 기술적 발전 이외에도 1950-60년대의 냉전으로 인해 국가의 안전과 경제 개발의 토대로서 과학에 대한 강한 욕구가 나타나게 되었고, 높은 수준의 전문적 기술에 대해 더욱더 많은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적절한 문헌정보학 교육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시도되었고, 동시에 핵심 교과과정에 대한 관심도 되살아나게 되었다. 핵심 교과과정에 대한 논제는 1953년의 시카고 회의 이후 미국에서 오랜동안 문헌정보학자들간의 논쟁 거리가 되어 왔었다. 당시에 이 논제를 다룬 문헌과 교과과정의 바람직한 수록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당시의 문헌정보학자들 뿐만 아니라 사서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그에 대한 문제들과 의문점들이 여러 문헌에 잘 나타나 있다(Asheim 1953; Garrison 1974; Marco 1978; Swank 1967).

자동화와 같은 새로운 기술과 '정보관리' 및 '정보시스템 분석과 설계'와 같은 새로운 전공 영역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적 지식의 체계화가 미흡하며 동시에 전문지식의 체계화가 절실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전문직에 대한 철학의 필요성이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으나 문헌정보학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관련한 논의는 정보학의 출현을 둘러싸고 새로운 개념적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정보학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격렬한 논쟁의 출발점이 되어, 새로운 학문 즉 정보학의 본질과 특성을 규명하고, 정보학과 기존의 문헌정보학과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두 학문 분야의 결합과 분리에 관한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 결과, 양자는 그들의 전문적인 노력들에 대한 강력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공 영역과 교과과정의 통합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특히 미국의 문헌정보학 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였는가를 정리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초기에는 미국의 문헌정보학교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접근 방법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정보학 강의는, 강의를 시행되고 있는 대학의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며 일부 대학에서는 정보학 과정을 전통적인 도서관학 과정에 통합시키지는 않고 기존의 과정과 병행하여 강좌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반면에 다른 대학에서는 정보학 프로그램이 컴퓨터학과 컴퓨터공학과 같은 더욱 기술적 환경으로 지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부의 전통적인 도서관학교들은, 새로운 것과 과거의 것이 개념적으로 공존할 수 있으며 양자를 강화시키기 위해 통합되어야만 한다는 관점에서 정보학을 그들의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현재 특별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연구 분야는 후자와 같이 전통적인 도서관학 연구 영역에 정보학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북미의 도서관학교들은 몇 가지 유형의 해결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하고 실행에 옮겼지만, 문헌정보학의 발전이 뒤떨어져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혼란스럽고, 잠재적이기는 하지만 더욱 위협스러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한 상황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인 도서관학에 정보학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1970년대 초에 나타났으며(최성진 1973; 1974), 같은 시기에 칠레, 멕시코, 베네주엘라 및 콜롬비아와 같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정보학 분야의

과목을 개설하기 시작하였다(Horowitz 1988, 85-86).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변화 과정들은 단순히 도서관학교들이 최신의 발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과시였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소위 교과과정의 개편은 교과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전통적인 내용을 단순히 새로운 교과목 명칭으로 변경하는 수준에 그치기도 하였다. 따라서 두 분야간의 결합과 분리에 관한 논쟁과는 전혀 별개로, 문헌정보학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적인 통합과 조화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이다.

5. 3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5. 3. 1 개념영역의 교육프로그램

문헌정보학의 개념영역은 인간의 인식과정을 통해 그 실체를 규정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어떻게 앞에 이르는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더 넓은 범주에서의 개념영역의 특성은 인간 개발의 법칙과 직접 관련이 되어있다. 결국 학문은 어떤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적 특성의 관점에서 볼 때, 문헌정보학은 순수 사교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며, 문헌정보학의 목표는 여러 학문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의 성격에 관한 광범위한 이념, 이론 및 모델을 확인하고 종합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며, 또한 정보 현상에 대한 관측의견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동시에 정보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헌정보학은 구조, 질서 및 형식의 문제와 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메타학문(metascience)이며, 문헌정보학의 주요 임무는 개념적 도구들을 개발하는 것이어야 한다(Kaplan 1964, 14). 도서관 계획 수립의 맥락에서 문헌정보학의 개념적 특성이 사회에 제공하게 되는 장점은 사회적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념영역의 교육프로그램에는 문헌정보학을 학문으로서 연구하고, 문헌정보학의 발전, 가치, 신념, 목적, 기초지식 및 조사방법론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영역은 전문직의 이론적 근거와 전문직의 기본적인 역할의 속성과 범위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문헌정보학의 개념적 특성은 전문직의 정체성과 완전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결국 사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서의 태도, 전망 및 가치 등을 다루는 것이다.

개념영역의 교육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전문직으로서 자신의 역할, 의무 및 책임감 등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인 이론적 지식체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의 목적은 어떻게 전문직적인 지식에 도달하며, 그 지식이 무엇을 의미하며, 전문직적 역할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 분야의 현재 동향과 전망을 파악하여 그들이 선택한 전문직의 미래 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개념적 영역은 학생들에게 다른 분야 및 학문 영역에서의 정보관

련사항이나 연구의 최신상황을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서관 전문직이 현재의 상황에 도달하기 까지의 역사적 발전상황을 통해 자신들을 고무시키게 하는 것뿐 아니라 그 학문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게 하고 형성하게 할 지적 흐름을 탐구하고 이해하도록 복돋아 주는 것이다.

개념영역의 교육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주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보편적 지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Horowitz 1988, 115-116).

가. 인식의 문제 : 인식방법, 지적상태 또는 인식상황, 새로운 정보의 이용법, 새로운 정보 이용법을 기존의 개념 구조에 동화시키는 방법, 기존의 개념 구조를 새로운 지식의 측면에서 수정시키는 방법

나. 사회적 인식의 문제 : 사회인식방법 및 개인의 지식이 사회의 지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의 성격, 지식의 사회적 구조, 사회가 총체적 환경과 지각적 관계를 성립시키는 방법에 대한 도구

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 인간과 인간 간의 직접 또는 다양한 매체와 기술을 통해 전달되는 체계적 사상의 연구

라. 지식의 역사와 철학의 문제 : 시대와 다양한 문화를 통해 발전된 지식의 역사 및 철학의 문제, 지식에 대한 철학의 발전과 학문으로서 문헌정보학의 발전과의 관계

5. 3. 2 배경영역의 교육프로그램

문헌정보학의 배경영역은 문헌정보학이

지니고 있는 문화지향성에 의해 결정지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적 특성은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회발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즉, 문헌정보학은 정보가 운용되고 있는 사회에서 정보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게 되는 배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배경영역의 관점에서 문헌정보학은 개발이론, 혁신이론, 정치학, 정치경제학 등과 같은 사회과학의 관점을 수용하여 사회의 비전을 발전시켜야 하는 하나의 사회과학이 된다. 이러한 특성에서 문헌정보학의 목표는 사서들이, 개념영역에서 발전된 지적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개개인의 정보수집 행태를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적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계획수립 측면과 배경적 특성에서 표현되고 있는 문헌정보학이 사회에 제공하여야 하는 장점은 전문직적 활동들과 포괄적인 서비스를 결정지을 수 있는 국가정보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배경영역은 문헌정보학의 제도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즉, 이 영역은 사서직이 반드시 대처하여야 할 사회적 요구의 특성을 발견하고, 그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처할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이론과 상황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배경영역은 크게 3영역 즉 : 1) 문헌정보학의 제도화 2) 이용자 정보수집행태의 평가 및 예측 3) 정보서비스와 정보시스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강요하는 사회적 상황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배경영역 교육프로그램의 3가지 핵심영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Horowitz 1988, 117).

가. 문헌정보학의 제도화 : 전문직에 대한

포괄적 이해, 즉 사서직의 기원, 발전과정, 현재 상황 및 사서직의 미래 전망 등을 개관하는 것 : 전문직의 기준 : 전문직 단체 : 전문직 교육 : 봉사태도, 전문기관인 도서관과 그 봉사에 대한 연구를 기관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징에 대한 연구가 포함됨

나. 이용자 정보수집 행태의 평가 및 예측 : 이용자의 정보수집행태를 조사, 예측 및 평가하는데 필요한 지식, 방법 및 기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다. 정보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계획 수립과 관리 : 학생들이 종사하게 될 사회에 대해 깊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 이 견해는 경제적 영향, 정치구조, 문화적 가치, 기술의 변화 및 부의 분배 등을 포함함

5. 3. 3 기능영역의 교육프로그램

사서직과 커뮤니케이션 기술간의 관계가 문헌정보학의 기능적 특성을 결정짓고 있다. 기능적 특성 면에서 문헌정보학은 응용학문의 일종인 정보공학과도 관련이 있어서, 문헌정보학은, 개념영역과 상황영역에서 개발된 이론을 토대로 정보의 조직과 검색 및 이용자 시스템의 설계에 필요한 지적 도구를 개발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헌정보학의 기능영역이 사회에 제공하게 되는 장점은 정보를 조직, 통제, 축적 및 검색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여 사회에 제공하게 되는 점이다.

이 영역은 정보의 수집, 조직, 통제, 축적 및 검색 방법에 대해 강조하고 있어서 학생

들에게 정보처리 및 기술에 대한 설계, 평가 및 관리에 대해 훈련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 학생들에게 선정된 이용자 시스템의 경제적 요구와 정보요구에 가장 잘 대응할 완벽하게 통합된 정보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적성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기능영역은 정보서비스의 제공시 경제적 측면과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적인 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비용, 복잡성 및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는 정보기술과 다양한 기술에 익숙치 않은 이용자들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하는 중개인으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을 특정기관, 매체 또는 기술에 얽매이게 하지 않는 훈련을 받아야 하며,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정보의 질이 보장될 수 있는 적절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수작업과 자동화의 특징을 경제적이고도 현실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유형의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기능영역의 교육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Horowitz 1988, 118).

가. 모든 매체에 익숙하여야 하며, 각 매체의 특성과 가능성을 파악하여야 하며, 또한 각 매체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교육적 영향뿐만 아니라 각 매체와 신기술의 경제적인 타당성도 파악하여야만 한다.

나. 구입 이외의 수서방법도 활용하여야

한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법 이외의 다른 정보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의 현황에 대한 추적하기 어려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다. 구전 민속을 포함하여 문서화되지 않은 사상과 경험을 저술하고 기록하는 일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 국가의 문화적 정서가 반영되어, 자료의 검색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색인 및 검색어를 개발하여야 한다.

6. 결론

사회발전은 물론 학문의 발전에 있어서 세계 각 국가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도리어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문헌정보학도 개발도상국가들 고유의 지역적인 상황, 요구 및 능력 등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선진 외국의 문헌정보학에서 차용해 온 일반적인 방법론과 기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서 학문적 예측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문헌정보학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무엇이 요구되는가에 대해 검토하고, 각 국가 고유의 현실에 적합한 문헌정보학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여 그것을 위한 방안모색의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정보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 어떠한 발전 단계를 거쳐왔

는가를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문헌정보학의 발전단계를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발전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양상들을 검토해 보았다.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토대를 모색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는 과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문헌정보학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속성에 대해 학자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또는 접근하는 학자들의 배경지식에 따라 그것을 규명하려는 관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접근법이 사용되어 왔다. 이에 본 장에서는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토대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중 기능주의적 접근, 환원주의적 접근 및 형이상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문헌정보학이 지니고 있는 現狀들을 점검하였다. 이는 문헌정보학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이들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함이었다. 본고에서 제시된 문헌정보학의 현상으로는 토착성의 결여, 전문용어의 혼란, 이론적 토대의 결여 및 문헌정보학 이론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문헌정보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 특히 문헌정보학 교육프로그램 포함되어야 할 영역들을 제시하였다. 발전방향으로는 지역별 협력과 계획의 필연성, 전공영역 및 교과과정의 조정 및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은 3영역의 교육프로그램 즉, 개념영역, 배경영역 및

기능영역에서 개발되어야 하며, 각 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인 용 문 헌

霍國慶, 孟廣均, 徐引篋(1998-a). “西方圖書館學流派論評(1),” 圖書情報工作, 4, 3-9.

霍國慶, 孟廣均, 徐引篋(1998-b). “西方圖書館學流派論評(2),” 圖書情報工作, 5, 1-5.

남태우, 정준민(1995). “情報社會를 대비한 情報專門家 養成을 위한 産學協同 및 教育課程 開發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8, 193-246.

이수상(1998).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단계. 서울: 한울.

이춘희(1970). “한국도서관학회 창립총회 개회사,” 도서관학, 1, 154-155.

최성진(1973). “도서관학과 정보학: 그 경계 구획을 다룬 문헌에 대한 고찰,” 도서관학보(중앙대), 2, 177-204.

———. (1974). “도서관교육의 새 방향: 전통적 교육내용과 정보학의 통합문제를 중심으로,” 도서관, 29(4), 9-14.

———. (1993). “한국 문헌정보학에 대하여,” 창사이춘희교수정년기념논총, 82.

Asheim, L. (1953). The Core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 A Report of a Workshop Held under the Auspices of the Graduate Library School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August 10-15, 1953. Chicago : ALA, 1954.

Broadfield, A. (1949). A Philosophy of

Librarianship. London : Grafton.

Butler, P. (1933).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rist, J. M. (1972). Toward a Philosophy of Educational Librarianship. Littleton, Colo. : Libraries Unlimited.

Danton, J. P. ([1934] 1975). Plea for a Philosophy of Librarianship. In B. McCrimmon(ed.), American Library Philosophy: An Anthology. Hamden, Conn.: Shoe String Press. Reprinted from Library Quarterly. 4(4), 527-551.

Garrison, G. (1974). “Change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Core,” Drexel Library Quarterly, 10, 30.

Harris, M. H. (1976). “Portrait in Paradox: Commitment and Ambivalence in America Librarianship; 1876-1976,” Libri, 26(4), 281-301.

Havard-Williams, P. (1976). “Education for Library, Information and Archives Studies” IFLA Journal, 2(3), 137-146.

Horowitz, R. G. (1988). Librarianship: a Third World Perspective. New York: Greenwood Press.

- Kaplan, A. (1964). "The Age of the Symbol : A Philosophy of Library Education," *Library Quarterly*, 34, 285-304.
- Krieg, Werner and Grunwald, Wilhelm (1970). "Die Bibliothekswissenschaft in Lehre und Forschung," *Bibliotheksdienst*. Jg. 4, S. 175-180.
- Lancaster, W. (1977).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Library Services*. Washington, D. C. : Information Resources Press.
- Levitan, K. B. (1982). "Applying a Holistic Framework to Synthesize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B. Dervin and M. J. Voigt (ed.)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s*, 2, 241-273.
- Marco, C. A. ([1966] 1975). "Old Wine in New Bottles," In B. McCrimmon (ed.), *American Library Philosophy : An Anthology*. Hamden, Conn. : Shoe String Press. Reprint.(1978).
- . (1978). "Recent Adventures of the American Core Curriculum,"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32 (4), 279-283.
- Moon, E. (1964). "Editorial," *Library Journal*, 89(13), 2750.
- Mukherjee, A. K. (1966). *Librarianship : Its Philosophy and History*. Bombay : Asia Publishing House.
- Nitecki, J. Z. (1964). "Public Interest and the Theory of Librarianship."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5, 269-278.
- Ortega y Gasset, J. (1961). [The Mission of the Librarian.] (J. Lewis and R. Carpenter, eds. and trans.) Boston: G. K. Hall & Co. (Reprinted from *Antoich Review*, 1961, 61(2), 133-134.)
- Sabor, J. (1966). "Re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Library Function in Latin America,"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20(6).
- Shera, J. H. (1965). *Libraries and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Hamden, Conn. : Archon Books.
- . (1972). *The Foundations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New York: Becker and Hayes.
- . (1973). *The Aims and Content of Graduate Library Education*. In H. Borko(ed.), *Targets for Research in Library Education*.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Swank, R. C. (1967).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Service in the Core Library School Curriculum," *Special Libraries*, 58(1), 40-45.
- Williamson, C. C. (1923). *Training for Library Service*. New York: Carnegie Corporation.
- Wilson, L. R. (1966). *Education and Libraries* (M. F. Tauber and J. Orne eds.) New York: Shoe String

Press.
Wright, H. C. (1977). The Oral Antecedents of Greek Librarianship.

Provo, Utah: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